



겨울 제주 서정 담아 실내악의 매력 나눈다

5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작년 실내악콩쿠르 입상자 등 20~23일 아트센터 메인 공연 갤러리 하우스콘서트는 3회 오늘 영아티스트 콘서트 첫선



제5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출연진. 신예부터 관록의 연주자까지 앙상블 무대로 함께한다.

벌써 5회째다. 1월 한 달간 펼쳐지는 2022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JICMF)이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와 교류를 통해 제주국제관악제와는 또 다른 빛깔로 '음악 메카' 제주를 꿈꾸는 축제로 이번에는 제주아트센터와 JICMF 조직위원회 공동 주최로 '겨울 여정(Winter Voyage)'이란 주제 아래 겨울 제주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실내악의 매력을 나눈다.

메인 공연은 이달 20일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사랑, 안식, 자유, 축제의 여정 등 매회 주제를 달리해 신예

연주자와 관록의 무대가 잇따른다. 첫날에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회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 전체대상을 차지한 '르포렘(Leporem) 트리오'가 출연한다. 둘째 날에는 앙상블 데어 토니카, 부산챔버소사 이아티 등이 무대에 오른다. 넷째 날에는 제1회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 아티스트 부문 2위에 선정된 '앙상블 아투지'의 연주가 예정됐다. 이들과 더불어 메인 공연에는 첼로 이강호·이송희·주연선, 비올라 김상진, 바이올린 김다미·김덕우·김선희·김응수·이석중, 피아노

계명선·김태형, 호른 이석준, 클라리넷 김동진·송호섭 등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앙상블 공연으로 함께한다. 추계예대 명예교수인 피아니스트 김용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자 김홍식 등은 해설을 맡는다. 전문 공연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펼쳐지는 하우스콘서트도 세 차례 이어진다. 5일과 15일 오후 4시 델문도 뮤지엄, 27일 오후 7시 월정예비뉴가 그곳이다. 특히 5일 진행되는 하우스콘서트는 처음으로 '영아티스트 콘서트'로 꾸민다. 제주 지

역 우수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 입상자와 조직위원회가 추천하는 문수정(제주대 4), 김규리(제주대 2), 문석현(NLCS 제주 11), 문석환(영국 해로스쿨 10), 임나운(서귀포여고 2), 김재현(삼성초 5)이 출연한다. 특별 연주로 심희정 제주대 교수, 서수민 추계예술대 교수의 무대도 마련된다. 27일 하우스콘서트에는 실내악콩쿠르 아티스트 부문 4위에 입상한 '에르모소 콰르텟'이 참여한다.

심희정 조직위원장은 "제1회 제주국제실내악콩쿠르의 입상자들이 화려하게 데뷔 무대를 장식하고 국내 저명 연주자, 국제실내악콩쿠르를 통해 선발된 청년 예술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은 JICM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계곡이김현관

<28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두 아은, 빌 피후겐 와당와당 돌오명 비 피후딜 좃안 놔이 헛간으로 들어갓저. 그 딘 농사세 씨는 이것 저것덜이 이섯주. 땅을 파는 삽이영 곡갱이, 골갱이, 망탱이덜이 이섯저. 여즈 아아가 발이 아프덴 후연 남즈 아아가 망탱일 곳어단 쯤뚝더레 난 그디 앓이덴 후였저. 여즈 아은 맹심후명 앓안게. 남즈 아오신디 고담덴도 앓안게. 으맹이 골맨. "하르바님, 여즈 아오 나뉘 남즈 아오 문침 집이 가시민양." 하르바지 골맨. "아니여게, 두 아은 갑재기 비가 와부닌 오도기도 못후는 신세가 꿩어시네. 경후난 돌이 후디 오몽후여사 하느네게. 여즈 후차 놔 두질 못후드네. 그동안 남즈 아은 여즈 아오신디 정이 들언게."

* 제주어 풀이

- *빌 피후겐: 비를 피하려고.
- *와당와당(바당바당): <어찌> 급히 서두를 때 나는 소리나 모습을 흉내 낸 풀.
- *돌오명 비 피후딜 좃안: 뛰면서 비 피할 곳을 찾아서.
- *헛간: <이름> 헛간. 물건을 보관하는 곳
- *놔이 헛간으로 들어갓저: 남의 헛간으로 들어갔어.
- *곡갱이: <이름>두 폭 모두 뾰족하고 길쭉한 날이 있어 주로 돌이 많이 섞인 땅을 파거나 돌을 파 꺼내거나 좁은 틈을 찍어내기 좋게된 맹이의 하나.
- *망탱일 곳어단 쯤뚝더레 난: 망탱이를 끌어가다 옆으로 놓고.
- *그디 앓이덴 후였저: 거기에 앉으라고 했어.
- *갑재기(갑재기, 갑자기, 갑재기): <어찌> 갑자기.

고재만 화백

새해 전시장에 꽃 그림 잔치 열렸네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 전시 현인갤러리 행복한 꽃 그림 월정아트센터 강은정 꽃과 말 이룸갤러리 김현진 '나는 꽃'

다 다른 빛깔을 품은 70여 점을 내놓았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구입하면 기부로 이어지는 전시다. 온라인(http://mandukonline.jejur.net)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현인갤러리에서는 '행복한 새해 맞이 꽃 그림 잔치'를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월간 미술세계, 목산미술박물관과 공동으로 '더 플라워' 주제를 열었는데 6년 만에 다시 한번 꽃 그림으로 연초 기획전을 갖는다.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100여 점의 꽃 그림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 생활이 길어지는 때에 꽃 그림과 함께 여유를 찾아보도록 마련된 자리다. 김성환의 '자복련', '김영철의 '정물', 김응수의 '장



강은정의 '소망 #11'

미', 문봉선의 '새우란' 등과 더불어 판화 작품인 교영훈의 '작약', 이준립의 '정원' 등이 나온다.

월정예비뉴 2층 월정아트센터 제2기획전시실에선 이달 4일부터 제주 출신 강은정 개인전을 열고 있다. 강은정 작가는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채색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꽃과 말(馬)이 한 화면 안에서 어울린다.

전시 주제는 '꿈을 꾸다-환영과 상징'이다. 작가의 내면을 투영해 꽃으로 표현한 말의 이미지 등 작품에 숨어 있는 말을 찾는 재미와 함께 새것과 옛것의 상징성을 새겨볼 수 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룸갤러리는 연말연시 기획전으로 예담 김현진 초대전을 준비했다. 이달 14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에 달린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 허트', '아이 엠 어 플라워' 시리즈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온기를 전하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출품작은 80점이 넘는다.

김백화미술관은 제주도 등록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그림 수업 '네모의 꿈'에서 완성된 수강생 작품으로 전시를 꾸몄다. 장소는 미술관 2층 문화예술교육 공간 '화실'로 이달 30일까지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독서로 책과 만남

달리도서관 필사모임 운영 올해 첫 도서 '나의 사유 재산'

제주시 도심에 있는 작은도서관 '달리도서관' (제주시 신성로 12길 21-2 2층)이 새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독서'를 이어간다. '달리 필사모임' 프로그램이다.

달리도서관은 책과 수다 떠는 달리도서관의 필사모임을 말한다. 정해진 도서의 문장을 "아껴가며 천천히" 필사하면서 책의 내용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달필수다 1기 선정 도서는 미국 시인인 메리 루플의 '나의 사유 재산'이다. 저자는 산문집 속

41개의 작품을 통해 월경을 끝마치고 노년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며 체험한 사랑과 고통, 위안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달리도서관 측은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간다. 기이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세계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는 그 여정에 이 책이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1기 운영 기간은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필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원(도서관 후원회원 무료). 전화(702-0236)나 SNS(인스타그램 @dalli_jeju)로 신청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수 상

2021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강승호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다한울타리 회원 일동

수 상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고문택

승 축 진

삼성증권 제주지점장



변영식
(본 마을음상가리 출신)

삼성증권 제주지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전 외삼촌 가족 일동

수 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백용호
(본 마을회 감사)

재난대응 민관협력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용담2동 흥운마을회
회장 유재호 의 회원 일동